

기본급 120,304원 인상! 노조파괴 대응 노동3권 보장!
공직취임 쟁취! 감염병 보호! 노조 및 지부 회의 참여 보장!



2020.07.06(월)

지부교섭 속보

08호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김정태 ■주소: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8차 지부교섭_2차 제시안 제출]

조합원이 직접 판단한다!

제시안 고작 이거?? 사측의 배짱교섭!

사측이 2일(목) 8차 교섭에서 2차 제시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딱 이정도 수준이다.

<2차 제시안>

1. 2020년 임금인상 : 각 지회와 협의 후 추후 제시
2. 노조파괴 대응 노동3권 보장 : 추후 제시
3. 공직취임 : 추가 제시 없음
4.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 추후 제시
5. 본조 및 지부 주관 회의시 지회, 지부 담당간부 시간 할애 : 기존 합의안 유지

지난 7차 교섭에서 제시안 준비할 생각조차 안했던 사측을 강하게 질타했더니 이번 교섭에서는 어떻게든 준비한다고 한 내용이 이렇다. 안하니만 못하다.

조합원들의 분노 확인해봐라!

지난주 교섭부터 사측 교섭위원들은 조합원들을 도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에는 당연히 교섭 결렬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시안 준비조차 안했다. 오히려 교섭을 결렬하고 싶어했다. 이번주 교섭에서는 제시안이라고 제출했지만,

보다시피 전부 ‘추후제시’ 아니면 ‘기존 합의안 유지’ 한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아무 의미없는 제시안을 내놓았다.

김정태 지부장은 “오늘 제시안은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 조합원들이 직접 판단할거다. 지부는 22일 총파업 상정하고 있다. 그 때 조합원들의 분노가 어떤지 직접 판단해라. 조합원들이 지도부 지침으로 나온건지, 자발적으로 투쟁에 나오는지 각 사업장의 사용자들이 잘 판단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7/22(수) 지부 총파업!

금속노조는 3일(금) 일괄 조정신청에 돌입했다. 지부 전체 사업장도 함께 조정신청에 들어갔다. 13일(월)부터는 쟁의권이 확보된다. 지부는 22일(수) 지부총파업을 준비한다. 자본은 올해 교섭에서 코로나 위기를 핑계로 어느 때 보다 배짱교섭을 하고 있다. 파업이든 뭐든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이다. 오만한 자본에게 조합원들의 분노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배짱 부리는 자본에게 22일 지부 총파업으로 우리의 투쟁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자.

8차 교섭 속기록

조합원들의 분노 직접 보고 판단해라

사 : 97년 IMF, 07년 리먼사태 금융위기, 메르스, 사스 감염병 같은 위기가 있었다. 지금 저도 태어나서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기를 겪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굉장히 틀에 짓눌려 사는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생활하고 있다.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도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 잠잠하다가 다시 확산되고, 대전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초유의 사태 때는 교섭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오늘도 1시간 전부터 논의했는데 쉽지 않다. 지난주에는 많이 혼내셨는데, 배려와 격려를 통해서 지혜를 모아서 다 생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면 좋겠다. 오늘 제시안 제 스스로도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닌데 양해바란다. 사측에서도 시간을 갖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안을 어떻게 제시할지 고민하겠다.

노 : 지난주에 성난 민심을 보여줘야 되냐고 했는데 오늘 제시안 보고 우리 조합원들이 판단할 거라고 본다. 제시안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조합원들이 투쟁을 더 가열차게 나올거고 제시안이 만족스러우면 그렇지 않겠죠. 누가 땡벌에서 투쟁하고 싶나? 다들 코로나 걱정도 크다. 그러면서도 투쟁할 수밖에 없다. 먹고 사는데 왜 노동자만 희생하고 양보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지역에서도 알게모르게 전방위적으로 공격하는 걸로 안다. 97년 IMF, 08년 금융위기 거치면서 그런 방식이 결코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없다는게 판명됐다. 오히려 사회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노동자 내부 격차도 커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을 가져가야할지 사용자도 고민해야할 때다. 저도 교섭 오래하고 싶지 않다. 올해 요구한 거 들어주면 그만 아닌가? 공직취임 1명 더 인정한다고 회사가 망하냐? 조합간부 회의시간 보장하면 회사가 망할 정도인

가? 기본적으로 함께 살자고 생각하면 거기에 맞는 행동이 나와야 한다. 오늘 제시안은 제가 판단하지 않겠다. 조합원들이 직접 판단할거다. 노조 투쟁계획은 사용자도 다 알거다. 지부는 22일 총과업 상정하고 있다. 그 때 조합원들의 분노가 어떤지 직접 판단해라. 조합원들이 지도부 지침으로 나온건지, 자발적으로 투쟁에 나오는지를 각 사업장의 사용자들이 잘 판단해라. 생각보다 조합원들 불만 많다. 6개사 다 똑같다. 그럼에도 코로나 위기 때문에 참고 말을 안하고 있는거다. 그래도 교섭에서 최소한 사용자가 우리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안을 제출하지 않을까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장담하는데 오늘 제시안이 어떠냐에 따라 우리 조합원들이 일어날거라고 본다. 제시안에 대해 교섭위원이 판단 안하겠다. 사용자들이 이후에 조합원들 분노 보고 판단해라.

〈제시안 제출〉

노 : 공직취임에 대해 추가 제출 없다는 건 더 이상 제시 안하겠다는건가?

사 : 오늘은 어렵고 추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노 : 본조 및 지부 주관 회의시 담당 간부 시간할애에 대해 기존합의안 유지한다는 게 어떤 뜻인가?

사 : 2008년 지부교섭 합의내용을 말한다. 그 때 참여하지 않았던 회사들도 수용한다는 의미다.

노 : 2008년 합의는 지회 담당간부만 명시돼있다. 지금은 지회 단체협약 조합원 범위에 해당 안되는 분들이 지부 개별조합원이 계속 확보되고 있고 지부 대의원도 선출한다. 그 부분을 인정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게 맞다. 금속노조 일정에 따라 조정에 들어간다. 교섭 결렬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교섭을 잠시 쉬는 시간을 갖자. 교섭 재개는 실무 통해서 논의하자.